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들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는 데는 길이 있다. 길은 곧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길을 찾기보다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수필시대는 이를 깊이 느껴 살아가는 길과 바른 생각을 갖도록 부추이는 글을 찾아 연재한다. “삶과 道 사이”란 제목이다.... (편집자 주)

## 自在庵<sub>자재암</sub>의 원효를 찾아서

• 김 대 원 •

dk9595@hanmail.net

창문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이마를 따갑게 하지만 아침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모처럼 파란 얼굴로 맑아진 하늘엔 흰 구름마저 두둥실 떠있는 것이 초가을 날씨를 느끼게 한다. 분위기가 이럴 때는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래, 나서 보자. 어느새 나는 전철역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의 행선지는 逍遙山소요산이다. 서화담(서경덕1489~1546), 양봉래(양



수필가, 시인.  
2004년 《수필과비평》 등단. 2006년 《에세이문학》 추천완료.  
2008년 제13회 탐미문학상(수필), 제20회 허난설헌문학상(시) 수상.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달마문화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수필과비평작가회, 에세이문화회,  
서울시단, 신문예작가회 회원.

사언(1517~1584)와 매월당(김시습 1435~1493) 등이 즐겨 찾아 소요하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수려한 경관을 찾아 소요하며 키운 詩心시심이어서 모두들 絶句절구를 남겼을까. 그 유명한 松都三絶송도삼절중의 두 주인공인 서경덕과 황진이의 ‘해바라기 사랑’이 생각난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조를 음미해 본다.

‘마음이 어린 後후니 하난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난

지난 날 부난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만 겹으로 구름이 둘러싸인 성거산에 어느 누가 나를 찾아오겠는가. 그런데도 불어오는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소리를 듣고 혹시 그녀가 왔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다.)

서경덕이 가끔은 황진이를 그리워했던 모양이다. 이에 황진이가 화답한다.

‘내 언제 無信무신하야 님을 언제 속였관대

月沈三更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秋風추풍에 지난 날 소래야 낸들 어이 하리오.’

(내가 언제 신의도 없이 님을 속였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달 밝은 깊은 밤에 무기력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즉 허전하다.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까지 내가 어찌겠는가.)

나도 당신이 그리운 것을, 당신이 나를 그리며 나뭇잎 소리를 내 발걸음 소리로 착각하는 것까지 내가 어쩔 수 있겠는가라는 뜻일 게다.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뛰어 넘어 스승과 제자로서 지고한 정신적 사랑만 나누었다는 그들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는 애뜻한 마음을 읽는다.

地名지명의 내력은 이렇다 해도 소요산 하면 아무래도 먼저 自在庵재애암이 떠오르고, 이들보다 훨씬 前代전대의 사람인 元曉大師원효대사(617~686)가 떠오른다. 원효를 찾아서 발길을 옮겨 본다. 전철이 소요산까지 닿아서인지 평

일인데도 제법 사람들이 많았다.

안내판을 보니 평은 물론 이름이 생소한 ‘어치’라는 새, 빨강과 검정에 흰 색이 어우러진 머리의 딱따구리 같은 조류와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다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산 들머리부터 무성한 단풍나무 숲이 시원한 그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은 온통 질푸른 초록색이지만 곧 다가올 가을이면 고운 색깔로 단장을 할 것이다. 길 아래 계곡에는 여기저기 소풍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서 늦더위를 식히고 있다.

간간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울려 화투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도 정겨워 보인다. 무슨 돈이 많다고 투전을 하겠는가. 시원한 냉면이나 막걸리 내기 정도일 터. 그 한참 위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불어 제키는 하모니카 연주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한다. 양손으로 하모니카를 잡고 머리를 전후좌우로 흔들면서 지그시 눈을 감은 할아버지는 지나가 버린 젊은 날의 뒤편길을 더듬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옛 유행가 가락이 무심한 세월을 넘나들게 한다.

다시 발길을 옮기니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울울창창 우거진 숲이다. 그 숲에 못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으리란 생각을 하고 걷는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길을 막는다. 검은색 집게벌레 한 마리가 아스팔트길을 건너 숲을 향하고 있지만, 그에겐 절벽 같은 도로 경계석을 넘을 수 없어 자꾸만 미끄러지고 있다. 저렇게 머뭇거리다가 자칫 오가는 이들의 무심한 발길에 밟히기라도 하면 야단이다. 나뭇잎에 녀석을 감싸서 풀 섶으로 던져 주니 죽은 듯 발랑 누어 꼼짝 않고 있다. 보호본능을 느낀다. 이래서 스님들이 만물이 생성하는 한 여름에는 나다니지 않고 칩거 수행하는 夏安居하얀거에 든다고 한다.

‘逍遙山소요산 自在庵자재암’이라고 쓴 懸板현판이 걸린 일주문엔 ‘小金剛소금강’이란 작은 현판이 하나 더 걸려 있다. 글씨는 一中일중 金忠顯김충현 선생께서 쓰신 것으로 봐 오래되지는 않은 듯싶다.

일주문을 지나니 세속과 구도의 경계선일까, 바로 俗籬橋속리교가 나온다.

그 돌다리를 건너니 물소리가 요란하다. 왼쪽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소리다. 그 옛날 원효 스님께서 폭포수를 맞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선정삼매에 드셨는지 이름도 ‘원효폭포’라고 한다. 물속엔 못 들어가도 폭포 언저리 바위에 걸터앉아 그 흥내라도 내고 싶지만 접근금지 팻말이 팔을 벌리고 막아선다. 시원스레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니 등을 타고 흐르는 땀이 잦아드는 느낌이다.

속리교를 지나 언덕배기를 오르는 길은 나무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돌계단이었는데 최근에 바뀌 놓았나 보다. 얼핏 보아서는 편리한 시설 같은데 널판이 썩지 않게 강한 방부제 처리를 한 것이어서 자칫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나무 계단을 받치고 있는 철 구조물 설치에 따른 자연파괴와 그 밑에 살던 식물들의 枯死고사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계단을 돌아 내려가 오른쪽으로 오르니 부도탑이 보인다. 이 지역 일대에서 3·1독립 운동에 앞장섰다가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는 秋潭大宗師추담대종사(1898~1978)의 사리탑과 비문이다. 근처에 수령이 족히 몇 십 년은 되어 보이는 물푸레나무가 온 몸에 푸른 이끼를 두른 채 侍墓시묘살이 하듯 부도탑을 지키고 서있다.

드디어 자재암 마당에 발을 들여 놓았다. 범당을 참배한 뒤에 주지 惠林혜림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다. 신라 선덕여왕 14년(645)경에 원효대사가 개산하였다고 한다. 불자들이든 일반 등산객이든 원효대사 하면 우선 요석공주와의 일을 떠올리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며 웃으신다. 그 안의 깊은 뜻은 모르고 신분의 벽을 넘은 로맨스 정도의 호기심인 것 같아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이제 원효를 찾아서 역사의 뒤편길로 떠나보자. 원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동양 삼국이 우러러보았던 高僧大德고승대덕이자 우리 철학사에

지성적으로 가장 우뚝한 철학자이다. 때론 神異신이한 행적을 보이며 불쌍한 민중의 종교적 의지처가 되어 정토신앙을 설파한 종교인이기도 했다.

그의 대승사상은 1400년 전의 낡은 철학이 아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한 論논이나 疏소(대승기신론소)같은 저서와 설법에 그친 것만도 아니었다. 인류의 본원적 고민과 질문에 대한 빼어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겠다. 세상사를 어떤 가치의 집착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은 곧 無碍圓融무애원융한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원효대사의 大乘대승사상은 無私무사와 至公지공의 두 축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과 같다고 언명한 것은, 당시 신라 지도층에 대한 무사와 지공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할 것을 말한 대목으로,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에 아주 적합하고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된다.

소요산 들머리를 조금 지나다 보면 瑤石요석공주 별궁지가 있다. 요석공주는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의 딸로서 일찍이 혼자된 후 요석궁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때 원효가 전국을 주유하면서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태종무열왕이 알아듣고는 ‘이 스님이 필경 귀부인을 맺어주면 국가에 큰 일 할 사람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나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하면서 요석궁에 있던 공주와 緣연을 맺게 하니 그 기둥이 바로 설총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破戒과계한 원효는 속인 행세를 하며 자신을 小性居士소성거사라 칭하면서 마을을 전전하였다. 이때 광대들이 괴상한 바가지를 가지고 춤과 만담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 같은 물건을 만들어 《화엄경》의 ‘一切無碍人일체무애인 一道出生死일도출생사’에서 무애를 따다가 박의 이름을 짓고 《無碍歌무애가》라는 노래를 지어 춤추고 노래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귀족불교에서 벗어나 민중들에게도 어려운 불교 경전을 쉽게 알리는 야단법석을 연 것은 대중포교의 시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원효 같은 法力법력 높은 스님이 어찌하여 스스로 戒계를 破과하고 여인을 품었을까? 일반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릴 만한 사건이다.

원효가 말하는 계는 사회적 공동생활의 형식적 규범이 아니었다. 계의 정신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체하면서 남들에게 돋보이려는 ‘淺行천행’을 멀리 하고 ‘深戒심계’를 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원효대사가 출가승으로 요석공주와 통정함으로써 이른바 破戒과계를 한 셈이다. 왜 그는 과계를 했을까?

‘계를 지키려고 하다가 중생구제도 못하고 보살도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금강삼매경론》 계율관 편)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

어떤 대승적 목적을 향해 무애자재하고 보살도적인 삶, 無念무념 無境地무경지에서의 행이라 하겠다. 요석공주를 안아본들 일반인의 그런 세속적 욕망의 감정이 아니란 것이다. 감성적 안음은 애정행각으로 계율에 어긋나지만 원효는 도의 경지에서 한낱 여자로 본 것이 아니었다.

요석공주야 일반인의 경지에서 원효를 사모하였겠지만 원효는 공주를 품음으로서 모든 포교적 기반 구축 등 대승적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즉 중생구제와 사회적 교화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석공주와 통정한 이후 원효대사는 더욱 수행의 길로 정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곳 소요산의 자재암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사찰에 원효의 수행처라고 전해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보면 그의 치열한 구도행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외형적인 형식을 준수하면서 내적으로 마음은 이미 소유 의식으로 가득한 그런 도덕적 위선을 배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계를 지킴에 있어 천행과 심계를 구분하면서, 도덕주의적 형식과 명분주의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천행’으로 읽고, 마음이 본성의 如來藏여래장을 만나서 일어나는 마음의 경배를 계율을 깊이 하는 ‘심계’로 해석했다. 요석공주와의 만남은 형식적 명분주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의 과계로 여겨지겠지만, 마음의 깊이에서 일체의 소유론적 욕망을 벗어나 존재론적 욕망으로 전향한 마당에 요석공주와의 만남이 여래장의 만남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렇듯 비록 스스로 失戒실계하여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었으나 원효대사는 그 후 오로지 수행을 위해 인적이 끊긴 심산유곡을 찾아 해마다가 山紫水明 산자수명한 이곳 소요산에 이르러 초막을 짓고 勇猛精進용맹정진하였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자재암이다.

이때,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와 멀리 자재암이 보이는 곳에 조그만 궁을 짓고 원효가 수도하는 원효대를 향해서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올렸다고 한다. 아들 설총은 아버지 원효를 무척 존경하였으며 원효가 수행하는 토굴에 설총이 함께 동참할 때도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공주가 살던 별궁 터는 요석궁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표지석만 세월의 무게를 얹고 있다.

원효스님이 살던 옛터에 2년 전 뜻있는 불자들의 시주로 낡은 집을 헐고 건립한 요사채를 나와 羅漢殿나한전으로 갔다. 나한전은 원효스님께서 수행하시던 천연석굴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16나한과 천불이 봉안되어 있다. 천연 석굴이어서인지 훨씬 시원했다. 보살 한 분이 연신 이마에 맺히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절을 하고 있다. 나는 삼배의 예를 올리고 좌복을 깔고 앉았다.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께서 “너는 왜 왔고?”하시는 듯 자비의 눈길을 주신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禪定선정에 들었다. 석굴 오른쪽에 있는 옥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요란하더니 이내 들리는 듯 마는 듯 소리가 잦아든다. 하지만 잠깐의 참선으로 어찌 그 옛날 원효스님께서 하신 용맹정진을 느낄 수 있는나며 폭포수가 다시 큰소리로 나를 일깨운다.

하늘과 님의 마음은 알 수 없다 했던가. 올 때만 해도 맑던 하늘이었는데 굴벌당을 나서려니 후드득 비가 뜰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절 마당 바닥 위에 여기저기 무늬를 만드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心生則種種法生심생즉종종법생이요, 心滅則種種法滅심멸즉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난 즉 (옳고 그르고, 크고 작고,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가지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이 멸한 즉 상대적 시비의 가지가지 법이 없어지는 것이라.

원효대사의 悟道頌오도송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며 하늘을 응시해 본다.

그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을 때 심한 폭우를 만나 어떤 토굴에서 잠을 잤다. 밤중에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것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음을 알고 구역질이 났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름다움과 나쁜 것이 물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알겠구나.’하고 당나라 행을 접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날도 오늘처럼 갑자기 저렇게 폭우가 쏟아졌나보다.

장대비가 내려 오늘은 오를 수 없는 의상대와 나한봉 그리고 공주봉과 백운대 등의 봉우리들이 빗속에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이제 가을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다. 올 가을엔 보다 체계적인 탐구를 위해 원효의 심오한 철학세계로 빠져 봐야겠다. **수필시대**

구름은 흘러 어디로 가는가

박윤희

문예운동 / 값 9,000원